

식용유에 계란값까지 줄줄이 '비상'... 먹거리 물가 더 오르나

한국, 팜유 수입 물량 중 56.4%가 인니산
라면·과자·빵 가공식품 가격 상승 압력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치솟는 국제 곡물 가격에 이어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 결정으로 국내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연초 물가 상승을 견인한 국제유가에 이어 식품 물가까지 불안 조짐을 보이면서 '애그플레이션'(agflation·농산물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현상) 우려도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28일부터 팜유와 팜유 원료 물질의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팜유가 수출용으로 빠져나가며 내수 식용유 수입이 불안정해지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팜유시장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1위 수출국으로 꼽힌다. 한국도 인도네시아산 팜유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관세청의 수출입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수입한 인도네시아산 팜유의 규모는 지난해 34만1802t(3억7101만2000달러)으로 전체 수입량(60만5701t)의 56.4%를 차지했다.

국내에서는 팜유가 가정용으로 쓰이지는 않지만, 라면이나 과자·빵 등 가공식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화장품과 세제의 원료로도 들어간다. 당장 국내에 팜유 재고 여유분이 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의 팜유 수출 금지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 제품의 생산 차질과 제품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잠잠했던 국내 계란 가격마저 다시 들쭉이 있다. 25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24일 특란 30알의 평균 소비자 판

매가격은 7013원으로 7000원을 넘어서다. 1달 전(6363원)보다 10.2%나 상승했다.

달걀 한 판 가격은 지난 17일(7019원) 7000원대로 올라선 이후 8일 연속 7000원대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살처분으로 계란 가격이 1만원대까지 급등한 이후 5000~6000원 가격대를 형성하며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계란 가격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는 셈이다.

최근 계란 가격 상승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 곡물 가격 급등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제 곡물 가격 급등으로 닭 사료 가격이 덩달아 오르면서 계란 가격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사료의 원료가 되는 국제 곡물 가격은 2020년 하반기부터 오름세를 보이더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빠르게 올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지수는 전 분기 대비 5.8%(추정치) 올랐으며 2분기에는 13.6% 오를 거라고 전망했다.

이런 사료 가격 상승으로 계란 가격이 계



속 오르면 집밥 물가는 물론 각종 음식의 재료 가격 상승을 이끌어 외식 물가마저 끌어올릴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곡물 수입단가가 10% 상승하면 가공식품과 외식 소비자가 물가가 각각 3.40%, 0.58% 오르는 것

로 추정했다. 김중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이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거리두기 해제 첫 주말, 제주에 12만명 몰렸다

22~24일 12만3139명 제주 방문... 하루 평균 4만1046명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 맞은 첫 주말 사흘 동안 제주에는 12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리면서 전주와 비교해 하루 평균 1000명 가까이 늘었다.

25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22~24일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은 12만3139명으로 잠정 집계돼 일평균 4만1046명을 기록했다. 일별로 보면, 22일 4만2661명, 23일 4만611명, 24일 3만9867명 등이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방침을 발표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전주 주말과 비교하면, 일평균 1000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당시 제주에는 15일 4만919명, 16일 3만9317명, 17일 4만83명 등 12만319명이 방문했다. 하루 평균 4만106명 수준이었다.

2주 전 주말 11만6607명이 제주를 찾은 것과 견주면 하루 평균 2000명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관광업계에선 앞으로 제주를 찾는 여행객들이 더 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의남 제주도관광협회 제주종합관광안내센터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뒤 첫 주말이었던 만큼 앞으로 입도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말 기준 하루 평균 4만3000~4만5000명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수학여행단이나 세미나 관련 문의도 늘고 있고, 6월까지 항공권 좌석도 꽉 찼다"며 "렌터카 가동률도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선욱기자

헤라, 24시간 지속력 '실키 스테이 파운데이션'



아모레퍼시픽 헤라가 24시간 무너짐 없이 편안한 '실키 스테이 파운데이션 24H 롱웨어'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품은 균일한 밀착력이 특징으로 별도 메이크업 도구 없이 손으로 펴 발라도 좋은 커버력과 지속력을 경험할 수 있다.

마이크로 크러쉬 공정을 거친 얇고 가벼운

텍스처가 피부 속광을 섬세하게 살려준다. 미세한 주름과 모공까지 매끈하게 커버해 자연스러운 피부결을 연출한다. 촘촘하게 밀착된 실키 핏 래스팅 구조는 하루 종일 수경 화장이 필요 없는 지속력을 제공한다. 또 화사한 컬러가 바림과 동시에 촉촉하게 흡수돼 생기 있는 룩을 완성한다. 헤라는 약 2000명의 아시아인 피부 톤을 연구해 정교한 컬러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을 비롯한 동양인 피부에 어울리는 컬러를 구현했다. 특히 이 제품에는 기존 블랙 파운데이션에 없던 '19NI' 컬러를 새롭게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 제품은 25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출시한다. 5월부터는 전국 백화점 및 온라인 몰, 시코르, 세포라, 올리브영, 아모레 카운셀러 등에서도 만날 수 있다.

이슬비기자

이마트, 이상 기온 맞아 선풍기·에어컨 역대 최대 할인

오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행사 진행

마트가 알뜰하고 시원한 여름나기 준비를 위한 냉방기전 행사에 나선다.

이마트는 오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선풍기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총 10만대 물량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여대보다 2배 더 늘렸다. 봄 시즌 선풍기 행사로는 역대 최대다.

대표 상품은 지난해 2만8000여대 판매로 이마트 선풍기 판매량 1위를 차지한 '일렉트로맨 표준형 선풍기'로 정상이 4만4900원에서 행사

카드 구매 시 1만원 할인해준다.

이외에도 신일표준형 선풍기와 신일 BLDC 좌석용 선풍기를 행사카드 구매 시 1만원 할인해준다. 삼성 써클레이터도 행사카드 구입하면 2만원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에어컨 할인 행사도 실시한다. 5월 8일까지 LG 에어컨 행사카드 구매 시 최대 20만원 상품권 증정하고, 'LG 휘센타워'와 'LG 360° 공기청정기' 동시 구매 시 최대 20만원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최이슬기자

광주 동구 新랜드마크, 롯데건설 '엘시그니처' 투자자 관심 UP!

롯데건설 시공 '엘시그니처', 광주 금남로 5가역 일대 랜드마크 기대 효과 전망
도심 한복판 입지 기반 뛰어난 접근성 돋보여... 고품격 스카이어커뮤니티 '눈길'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최고 31층 하이엔드 레지던스 '엘시그니처'가 광주 금남로 한복판에서 4월 분양을 앞둔 가운데, 랜드마크급 생활숙박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랜드마크란, 대개 △브랜딩 △트렌드setting 및 규모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만족하는 곳을 말한다. 우수한 상품성과 영향력을 기반으로 주변 이미지를 대표하는 경향이 짙고, 주거 수요 및 그 만족도 역시 높은 편이다.

또, 같은 지역 내에서 제한된 입지에 자리하는 만큼 희소성이 높고, 주변 시세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2021 시공평가 7위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엘시그니처'는 우수한 브랜드 경쟁력을 기반으로 입지, 특화설계 등 다방면에서 장점을 갖추고 있다.

먼저, 광주지하철 1호선 금남로5가역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특히, 금남로5가역 6번 출구와 '엘시그니처'는 통로를 통해 직접 연결될 예정이다. 지하철 출구와 바로 이어짐에 따라, 입주민들은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금전적 프리미엄 형성 측면에서도 강점을 가져갈 전망이다. 또 제2순환로 학운IC 등 도로망도 편리해 지역 곳곳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광주송정역을 이용하여 서울역(KTX) 및 수서역(SRT)으로의 이동도 수월하다.

또한 단지가 들어가는 동구는 시내 금융 중심지로, 풍부한 배후수요를 자랑한다. 금남로 대로변을 따라 국민연금공단·기업은행·미래에셋대우·산업은행 등 공공 및 금융 기관 30여 곳이 자리하고 있다. 폭넓은 투자 및 임대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 롯데백화점과 금남전자랜드 등 대형 집객시설이 가깝고 먹자골목 및 상업시설이 인근에 밀집해 있다.

이외에도 광주 동구 중심상권인 금남로와 충장로와 인근으로, 광주수장초·광주제일고 등 학교도 가깝다.

각종 특화설계도 눈길을 끈다.

먼저, 독특한 외관을 기반으로 테라스 구조, 고급 마감재 및 인테리어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최근 서울 강남권에서 높은 선호도를 받고 있는 스카이어커뮤니티(22층)를 마련, 스카이라운지(22층) △오픈라이브러리(22층) △피트니스(22층) △골프연습장(22층)을 선보일 예정이며, 이밖에도 및 공용부 커뮤니티에 △수영장 △사우나 △회의실·세션오피스 △컨벤션홀 △디자이너(카페테리아) 등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게다가 고급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최고급 마감재는 물론, 여기에 스마트 IoT 시스템과 호텔급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광주 동구는 2018년 동명동을 시작으로 서남동, 산수동, 지난해 계림동까지 4년 연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는 등 여러 재건축·재정비 사업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다. 각종 개발호재를 바탕으로 높은 미래가치를 품어, 일대 부동산 가치는 내일이 상승할 전망이다.

한편, 대신자산신탁(주)이 시행수탁을, 스카이어커뮤니티가 시행위탁을,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엘시그니처'는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42번지 일원에 자리하며, 지하 6층~지상 31층 1개 동, 전용 33~219㎡ 총 279실 규모다. 수요자들의 다채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다양한 타입 구성으로 만족도를 높였다.

문의전화 : 1577-0335

유유나기자